

외국경찰 동향 4

動向

프랑스경찰 일반정보국의 조직과 활동

■ 최 원 석 *

I.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경찰의 정보업무 담당부서와 관련해서,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경찰정보기능의 존재이유(存在理由)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곤 하였다. 이 맥락에서 외국의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비교경찰론적 고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과연 다른 선진국에는 경찰의 정보기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고 수집 정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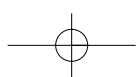
우리나라 정보경찰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정보경찰을 갖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이다. 프랑스의 일반정보국(direction centrale des renseignements generaux)은 경찰청장 아래의 다른 국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식 국(局)으로 자리하고 있다.¹⁾

일반정보국의 업무영역은 포괄적이다. 현재 프랑스 일반 정보국의 업무영역은, 선거동향, 사회내부적 갈등, 금융, 도시폭력 그리고 여론의 분열을 가져올 소지가 있는 모든 주요 사회현안들이다. 그리고 프랑스 경찰의 일반정보국은 “야당에 의해서 그 존재가 공격을 받다가 그 야당이 집권당이 된 후에는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²⁾

*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

1) 프랑스의 치안은 내무부소속 국립경찰(police nationale)과 국방부소속 국립잔다메리(gendarmerie nationale)의 국가경찰이 담당하며, 일부 자치체의 경우 자치경찰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 도시(都市)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프랑스 국립경찰에는, 청장 지휘 하에 교육국, 경무국, 감찰국, 형사국, 국토감시국, 방범국, 일반정보국, 국경경찰국, 공화국수비대본부, 경호국, 국제협력국의 11개국이 설치되어 있음. Alain Bauer et Andre-Michel Ventre, Les Polices en France, PUF, 2001, pp.19-21.

2) Bauer et Ventre, p.37.



아래에서는 먼저 프랑스 경찰청의 일반정보국의 임무 및 조직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정보경찰의 주요활동을 정치, 테러리즘, 그리고 사회현상에 대한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프랑스 경찰 일반정보국도 우리나라 경찰내의 정보국 못지않게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왔으며, 나름의 활로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II. 임무 및 조직

1985년 10월 2일의 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조직에 관한 테크레 (Decret relatif a l'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ere de l'interieur et de la decentralisation) 제12조 (1999년 1월 29일 99-57 테크레에 의해 신설)는 다음과 같이 일반정보국의 임무를 규정한다. “일반정보국은 정부에 제공할 용도의 정보의 수집 및 중앙집중을 담당한다; 일반정보국은 국가의 기본적 이익의 방위에 참가한다; 일반정보국은 치안의 일반적 임무에 기여한다. 정보국은 도박장 및 경마장의 감독의 임무를 진다.” 일반정보국에는 일반행정직을 포함해서 약 3,8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700명은 파리 수도경찰청의 정보국에서 근무한다. 일반정보국의 중앙조직은 4개의 부국(la sous-direction) 으로 구성되어 있다.³⁾ 먼저, 정보수집부국(la sous-direction de la recherche)은 테러집단과 범죄조직의 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을 담당한다. 이 부국의 1개과는 분쟁과 폭력계, 외부연락계, 외국계, DOM-TOM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1개과는 공작 및 특별추적계, 정보처리계, 그리고 지원계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전망 및 사회현상부국(la sous-direction de l'analyse, de la prospective et des faits de societe)은 사회, 경제부분에서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 판단을 임무로 하며, 최근에는 도시 폭력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국의 1개과는 도시 및 주변지역계, 사회분석계, 커뮤니케이션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1개과는 금융정보를 다루고 있다.

경마 및 게임담당부국(la sous-direction des courses et jeux)은 경마 및 도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카지노 감시계, 연구 및 통제계, 경마계, 범죄수사계, 교육-문서계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수사계 (section judiciaire)는 경마 및 오락관련 사건에 대한 전국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자원, 장비부국(la sous-direction des ressources et methodes)은 정보경찰 전체의 인적

3)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에 관해서는 Bauer et Ventre, pp.37-39 그리고 arrete du 6 novembre 1995 relatif a l'organisation et aux mission de la direction centrale des renseignements generaux et de ses services deconcentres 참조.

자원과 물적 자원, 서류 관리, 예산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일선기술감찰(inspection technique operationnelle)은 직원들이 근무규칙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감찰하고 국 내부의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참모본부(l'etat-major)는 경찰청, 파리수도경찰청, 기타 행정청이나 부처, 정보국의 지방조직과의 연락과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정보국의 지방조직은 지역(region)과 도(departement)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부도청 소재지에도 일부 조직이 있으며, 대도시에는 지소(postes)가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역(region)의 정보국에는 추적계(section recherche)가 설치되어 있다. 정보국의 이들 지방조직은 국립 잔다메리 관할지역인 촌락지역을 포함한 전국을 관할하는데 도지사(les prefets)와 국립경찰총국(la direction generale de la police nationale)내의 일반정보국 중앙조직의 감독을 받는다. 파리수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수도경찰청장 하에 일반정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정보국은 파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3개도까지 관할한다.

여기서, 일반정보국과 유사한 조직으로 국립경찰 내의 국토감시국(DST: la direction de la surveillance)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국토감시국은 특수형사경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안전 관련 정보기구이다. 전통적인 국토감시국의 임무는 세 가지로서, 방첩 (contre-espionage), 대테러 (contre-terrorism), 그리고 경제 및 과학자원의 보호(protection du patrimoine economique et scientifique) 이다. 이외에 화생방 무기, 조직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차원의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토감시국의 업무 중 대테러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정보국과의 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⁴⁾

III. 주요 활동

1. 정치관련 정보활동

가. 정당사찰활동의 폐지⁵⁾

일반정보국의 정당사찰활동은 계속 관행으로 묵인되어 오다가 1994년 이후 완전히 금지되었다. 1994년 이전 일반정보국 요원들이 모든 정당행사에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4) Francois Thuillier, L'Europe du Secret, la documentation francaise, 2000, p. 114.

5) Erich Inciyan, "Le PS bordelais saisit la justice de l'affaire de la camera-espion", Le Monde, 2000.2.12.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으나, 1994년 6월 사회당의 비밀집회의 회의내용을 파리수도경찰청 일반정보국 요원이 비밀리에 도청한 것이 발각되었으며, 이것이 기존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사회당은 비밀 도청을 “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 고소하였으며 당시 내무장관이던 Pasqua 는 당시 파리수도경찰청 일반정보국 국장 및 정당담당 경정급 간부를 면직하고 전 경찰에 대해 정당집회 등에 대한 감시업무를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림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정당사찰활동이 중단되게 되었다.

1997년에는 정치와 관련된 여론조사업무도 정보경찰의 업무에서 제외되었다. 1997년 내무장관이 된 Chevenement은 그때까지 정치권에 대해 선거예측 등의 여론조사를 해오던 정보국 내의 여론조사기관이었던 “여론조사 및 통계중앙사무실”(Office Central de sondage et de statistiques)을 해산함으로써 다시 한 번 정치관련 정보국 활동을 축소하였다. “여론 조사 및 통계중앙사무실”은 4000명의 표본조사를 행할 정도로 규모나 정확성 측면에서 뛰어난 여론조사기관이었다. 정당에 대한 정보수집이 금지되고 정보국 내의 여론조사기구가 폐지되긴 하였지만, 아래 사건은 정보국의 활동의 한계 그리고 정보국에 대한 정치권의 불신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 초에 국립경찰 일반정보국의 보르도 지방 근무자가 당시 집권당인 사회당(Parti Socialiste)의 지방당사 입구 맞은편 건물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던 사실이 밝혀져,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경찰청 감찰국은 이 사건과 관련, 지방 정보국 근무자가 상부의 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회당사 맞은편 거주 여자의 집에 설치하였으며, 1998년 1월 실업(失業) 관련 민원인들이 사회당사 건물에 난입하였을 때에만 실제로 카메라의 녹화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반면, 사회당측은, 경찰내부의 동조자로부터 1999년 12월 받은 정보에 근거해서, 카메라는 1999년 5월에도 사회당사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는 정보국 내 부서의 성격이 모호하며, 경찰 내의 사회주의 동조자들이 당사에 오는 것이 모두 녹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정식 수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극좌 및 극우정치세력에 대한 감시활동⁶⁾

현재 일반정보국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은 극좌, 극우정당 그리고 이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집단들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다. 2001년 6월 9일자 르몽드지는, 프랑스 경찰청 내 일반정보국이 극좌 (extreme gauche)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에

6) Pascal Ceaux, “Les RG ont fiche 155 personnalites supposees appartenir a l’extreme gauche”, Le Monde, 2001.6.9.

따르면, 일반정보국은 총 118페이지 분량의 “극좌 2000”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극좌에 속하는 254개 단체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며, 부록에는 극좌에 속하는 인물 155명의 명단도 수록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국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는 좌파정당 등에 대한 정치 동향파악은 하지 않지만, 유럽의회나 지방의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극좌정당, “혁명공산당연맹”이나 “노동자 투쟁”과 같은 정당에 대한 자료는 계속 파악하고 있다. 일반정보국은 극좌세력 이외에, 무정부주의나, 회교근본주의 등에 대해서도 “극좌 2000”에 유사한 형태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한다.

2. 테러리즘 관련 정보활동⁷⁾

테러리스트의 감시 및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정보국 내의 “공작 및 특별 추적계(SORS: la section operationnelle et recherches specialisees)”이다. 대테러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의 수는 약 300명이며, 이중 본부 SORS 요원의 수는 70여명이며, 총경급 (commissaire divisionnaire) 간부인 SORS의 장이 프랑스 내의 테러리스트 추적 및 감시활동의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에는 13개 지역에 “추적계(section recherche)”가 설치되어 있다.

SORS 는 업무대상에 따라 코르시카 담당부서, 바스크지역 담당부서, 그리고 브러통 분리주의자와 극좌, 극우세력 담당부서, 그리고 이슬람과 마피아 담당부서의 총 4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 그 외에 감시 및 미행의 기술적 측면을 담당하는 기술담당부서 (groupe technique)가 있다. 대테러업무의 성격상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 경찰부서가 협력하여야 하며, 프랑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대테러업무는 감시 및 미행, 수사 그리고 체포 등으로 이루어지며, 체포에는 RAID(우리의 경찰특공대에 해당), 그리고 수사에는 형사국 소속 대테러국가과 (DNAT: la division nationale anti-terroriste) 가 담당하며, 전체적인 통제업무는 경찰청장 직속의 대테러업무조정반 (UCLAT: unite de coordination de la lutte anti-terroriste)이 담당한다. 테러와 관련해서 일반정보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테러발생의 방지로서 범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일단 테러집단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이는 기본적으로 형사국의 수사대상이 된다.

대테러 업무의 성격상 “공작 및 특별추적계” 요원들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으며, 최신의 도청

7) Philippe Rospabe, “Les renseignements generaux et la lutte anti-terroriste”, in Civique, juin 2001 no. 108 pp. 22-25.

및 촬영장치를 사용해서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감시한다. 현재 정보국이 사용하는 전산파일은 테러리즘 전산파일(FAT: le fichier automatise du terrorisme)이며, 형사국과 밀접한 협력 하에 사용하고 있다.

3. 사회현상 및 경제 관련 정보활동

가. 도시폭력⁸⁾

2001년 1월 27일 파리외곽 라데팡스(la Defense) 지역에서, 약 200명의 젊은이들이 서로 패싸움을 하였는데, 이는 큰 사회문제로 다루어졌다. 이 사건은 Yvelines 도 내의 두 도시의 젊은이들 200여명이 서로 난투극을 벌인 사건으로, 이 사건의 원인은 불명확하며, 일부 젊은이들은 기차에서 일어난 두 도시출신 젊은이들 사이의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일부 젊은이들은 학교간 축구경기에서의 경쟁심을 이유로 들었다. 이 집단 패싸움에는 학교에서 소외된 젊은이뿐만 아니라 별 문제없는 젊은이도 가담하였으며, 나이는 14세에서 20세까지 다양하였으며, 그중 3분의 2는 미성년자였다.

바로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도 일반정보국의 업무의 일부이다. 도시 및 도시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폭력사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반정보국은 1991년 “도시 및 주변지역(villes et banlieues)계”를 신설하였으며 해당 문제에 대해 분석 및 해결책을 제시해 오고 있다.

이 사건 발생 후 “도시 및 주변지역계”는 라데팡스 사건을 포함한 패싸움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패싸움에 가담한 대부분 젊은이들은 이전에 전혀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임.

- 이들은, 구체적인 사건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핵심 비행자 5-15명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며, 따라서 인종적인 성격이 아니라 지역적인 성격을 띤.
- “패”는 쉽게 형성되는 만큼 결속력은 없음.
- 패싸움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996년 204건에서 1999년 39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패싸움으로 인한 사망은 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점차 빈번해지고 있음.
- 이런 패싸움이 문제로 등장한 도(departement)의 수는 26개에서 30개로 늘어났

8) Le Monde, "le phenomene des bandes s'etend au-dela des mineurs delinquants", 2001.2.14

으며, 주로 발생하는 도는 파리수도권 8개도와 Oise 도임. 패싸움이 주로 벌어지는 장소는 상가밀집지역이나 스포츠경기장임. 학교주변에서도 격렬한 패싸움이 일어나기도 함.

나. 돈세탁⁹⁾

프랑스 경찰청 일반정보국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의 하나는 경제관련 정보이다. 특히 돈세탁 관련 정보수집을 위해서 일반정보국은 1988년부터 도 단위 정보국소속 50여 경찰관으로 구성된 정보망을 운용해오고 있다.

2000년 6월 2-3일자 르몽드지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18개월동안 약 17억 프랑을 돈세탁하고, 불법밀입국에도 손을 댄 2개의 중국인 조직을 검거하였다. 이 범죄조직들은 중국인 사회에서 생기는 검은 돈, 주로 허가받지 않은 노동이나, 매출사실을 숨긴 채 발생하는 각종 매매의 수익금이 들어오면(매일 약 3-4백만 프랑 규모) 이를 프랑스 내 구좌로 넣은 후 이를 중국이나 홍콩, 또는 미국의 구좌로 계속해서 이체함으로써 돈세탁을 행한 후, 다시 이 돈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중국 등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거나 프랑스 내의 부동산이나 상업활동에 투자를 하였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부서는 경찰청 형사국 소속 대형금융범죄진압 중앙수사대(Office central pour la repression de la grande delinquance financiere)였지만, 이들은 18개월 동안 파리수도경찰청 일반정보국의 도움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IV. 맺음말

프랑스 경찰청 내의 일반정보국의 임무, 조직, 그리고 주요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의 일반정보국의 업무의 변천에 주목하였다.

현재의 프랑스의 일반정보국의 활동은 여전히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반정보국의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는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¹⁰⁾

반면, 정당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의 중단, 일반정보국 내 여론조사기구의 해체 등은 중요한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1991년 신설된 “도시 및 주변지역계”를 통해 현 프랑스 사회의

9) Le Monde, 2000.6.2-3.

10) Thuillier, pp.115-120.

문제적인 도시폭력에 대한 정보 수집에 적극 나선 것은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일반정보국이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¹⁾

참 고 문 헌

Bauer, Alain et Ventre, Andre-Michel, Les Polices en France, PUF, 2001.
 Le Monde, 2000.2.12 (Erich Inciyan, "Le PS bordelais saisit la justice de l' affaire de la camera-espion")
 Le Monde, 2000.6.2-3
 Le Monde, 2001.2.14 ("le phenomene des bandes s'etend au-dela des mineurs delinquants")
 Le Monde, 2001.6.9 (Pascal Ceaux, "Les RG ont fiche 155 personnalites supposees appartenir a l' extreme gauche")
 Rospabe, Philippe, "Les renseignements generaux et la lutte anti-terroriste", in Civique, juin 2001 no. 108 pp. 22-25.
 Thuillier, Francois, "l' Europe du secret", la documentation francaise, Paris, 2000

참고자료: 정보국의 임무 및 조직관련 법령

1985년 10월2일의 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조직에 관한 데크레(Decret relatif a l' organisation de l' 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ere de l' interieur et de la decentralisation) 제 12조 (1999년 1월 29일 99-57 데크레에 의해 신설)

【제12조】 정보국은 정부에 제공할 용도의 정보의 수집 및 중앙집중을 담당한다; 정보국은 국가의 기본적 이익의 방위에 참가한다; 정보국은 치안의 일반적 임무에 기여한다. 정보국은 도박장 및 경마장의 감독의 임무를 진다.

정보국 및 지방조직의 조직 및 임무에 관한 1995년 11월 6일의 령 (arrete du 6 novembre 1995 relatif a l' organisation et aux mission de la direction centrale des renseignements generaux et de ses services deconcentres)

11) Thuillier, pp.123-124.

【제1조】 정보국은 경찰청장 감독 하에 둔다. 정보국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즉 지역국(directions regionales)과 도 국(directions departementales)으로 구성된다. 정보국은 정부에 제공할 용도의 정보의 수집 및 중앙집중을 담당한다; 정보국은 국가의 기본적 이익의 방위에 참가한다; 정보국은 치안의 일반적 임무에 기여한다. 정보국은 도박장 및 경마장의 감독의 임무를 진다.

【제2조】 정보국의 중앙조직은 4개의 부국(sous-direction)으로 구성된다:

- 정보수집부국(la sous-direction de la recherche)은 테러리즘의 방지와 퇴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중앙집중, 그리고 국토에서 활동하는 위험집단의 감시의 업무를 담당;
 - 분석, 전망, 사회현상 부국(la sous-direction de l' analyse, de la prospective et des faits de societe)은 사회, 금융 그리고 사회현상 영역에서의 정보의 분석 및 종합을 담당;
 - 경마 및 도박 부국(la sous-direction des courses et jeux)은 도박장 및 경마장의 감독업무를 담당;
 - 자원 및 장비 부국(la sous-direction des ressources et des methodes)은 인적 자원, 물적 수단, 문서정리, 그리고 지방조직의 예산업무를 담당함.
- 중앙조직으로는 그 외에 경찰청, 정보국의 지방조직, 파리시경, 그리고 다른 행정조직이나 관청과의 연락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참모본부(etat-major)가 있으며, 그 외에 윤리적 규칙의 준수여부 감독 및 의사소통을 조정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일선감독부서(inspection technique operationnelle)가 있다.

【제3조】 정보국의 중앙부서들은 지방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고, 방향을 정해주고, 평가하고 통제한다.

【제4조】 정보국의 도 국(directions departementales)은 도의 도지사의 지시사항들, 그리고, 도지사의 감독 하에, 정보국 중앙부서에서 그리고, 5조 1항에서 규정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역 정보국장에 의해 전달된 지시사항들을 이행한다.

【제5조】 정보국의 지역 국장(directeur regional)은 그의 지방관할에 속하는 정보국 도 국들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며, 지역 지사의 감독 하에, 그리고 파리지역의 경우에는, 파리시경찰청 장의 감독 하에, 중앙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시를 도 국들에 전달한다. 지역 국장은,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해당지역의 지역적 한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특수 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방위지역(zone de defense)의 주도시에 위치한 정보국의 지역 국장은 방위 지역 지사의 권한사항에 관련되는 정보를 중앙집중한다. 이 임무의 수행을 위해, 그는 방위지역내의 다른 정보국 지역 국장들의 활동을 조정한다.

【제7조】 경찰청장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될, 본 령의 시행을 책임진다.